DAY 05 · 1부 AI가 뭔지

이 숫자, 대체 얼마나 큰 걸까? — 파라미터 감 잡기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9월 11일

숫자가 크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다

오늘의 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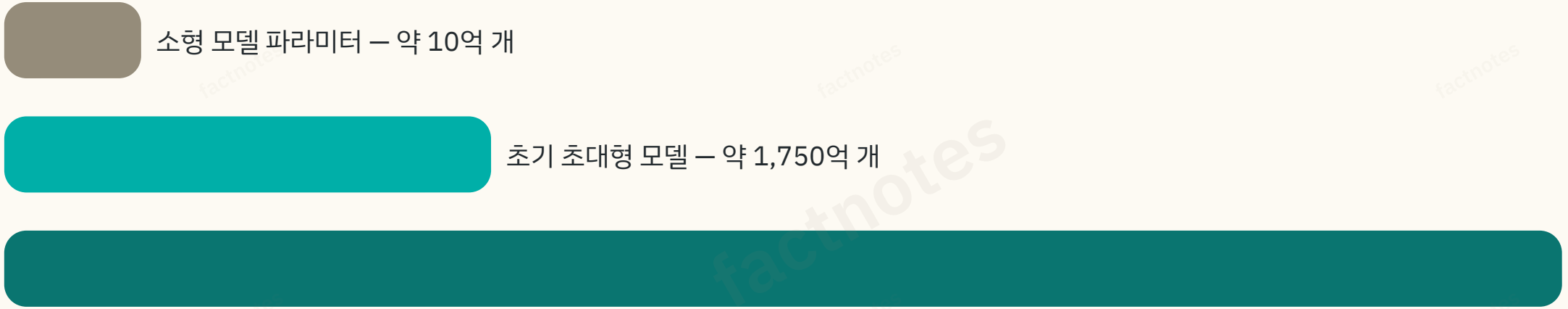
한 줄로 말하면

1. 파라미터는 학습 중 계속 고쳐지는 **가중치 숫자의 개수**야. 많을수록 담을 수 있는 패턴의 그릇이 커져.

2. 요즘 큰 모델은 파라미터가 **수백억~1조 개** 단위야. 사람 뇌 시냅스 수(약 100조 개)에는 아직 못 미쳐.

3. 파라미터가 많다고 무조건 똑똑한 건 아니야 — **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**가 함께 따라와야 해.

숫자로 감만 잡아보자 (정확한 비율 아님)



※ 막대 길이는 자릿수 차이를 느끼기 위한 그림일 뿐, 실제 비율이 아니다

핵심: AI는 아직 뇌의 복잡함을 다 따라잡지 못했다.

같은 '큰 숫자', 무엇에 비유하면 감이 올까

10억

소형 모델 파라미터

파라미터 수



약 10억 개

비유



웬만한 대도시 인구수

스마트폰에서도 돌릴 수 있는 크기

1,750억

초기 초대형 모델(GPT-3급)

파라미터 수



약 1,750억 개

비유



세계 인구의 20배가 넘는 수

사람이 감으로 세기 힘든 규모

100조

사람 뇌의 시냅스 수

시냅스 수



약 100조 개(추정)

비유



알려진 어떤 모델보다도 많다

AI는 아직 여기에 못 미친다

숫자 자체보다, '자릿수가 몇 개 다른지'를 느끼는 게 오늘의 목표다.

※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다.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**(O / X)**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항상 더 똑똑한 AI다.

Q2 **파라미터란 정확히 무엇인가?**

① 모델이 외운 문장 개수
② 학습 중 계속 고쳐지는 가중치 숫자의 개수
③ 서버의 개수
④ 동시 사용자 수

Q3 **(O / X)** 알려진 것 중에서는, 사람 뇌의 시냅스 수 추정치가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보다 많다.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X

크기는 그릇일 뿐, 데이터의 양과 질이 함께 좋아야 실력이 는다.

Q2

②

파라미터는 학습 중 조금씩 고쳐지는 숫자(가중치)의 총 개수다.

Q3

O

공개적으로 알려진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는 아직 사람 뇌 시냅스 추정치(약 100조 개)에 못 미친다.

숫자가 크다고
다 똑똑한 건 아니다.



내일은 '환각' — AI는 왜 없는 사실을 태연하게 지어낼까?